

제 5 호

성 가정 주일

1972. 12. 31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송년사】

한 해를 보내면서

조 성 호



회오리 바람 부는 국제적 국내적 격동 속에서 우리는 한해를 살아 왔습니다. 100억불 수출, 1,000불의 국민소득이라는 80년대의 화려한 꿈을 향해서 이제 「평화와 정의의 해」도 아쉬움을 남긴채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어제의 집적(集積)이요, 내일의 출발점입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내일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돌아다 봅시다.

(一)

인간을 하느님께 일치시키려고 하는 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인간이 그들의 삶속에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회는 그 자체가 사회 정의의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소경과 같이 어두움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광명을, 억압된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주는 그 그리스도의 비전과 사명이 곧 교회의 비전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김추기경, 성탄절 메시지에서)

교회는 사회속에 내재해 있는 엄청난 중대한 인간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교시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에 얼마만큼 철감하고 있는지?

(二)

우리는 행복을 돈에서나 쾌락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는 물질주의자는 아닙니다.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행복을 찾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그 한없는 사랑속에 어김없이 포용해 주시며 정화시켜 주는 생명의 은총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진질일진대 이 믿음의 기쁨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자신을 그리스도 자신으로써 보여준 일이 있는지?

내일의 우리 교회를 결코 밝게만 내다 볼 수 없는 세계 성소의 현황에 얼마만한 관심을 쏟았는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적 분위기가 감도는 교회 학교에 매력을 느껴 본 적이 있는지?

1972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십자가를 간직하며 이 영혼속에 하느님의 은총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불타는 확신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밝은 내일의 창조를 위해 다가오는 1973년을 보람있게 맞이합시다.
 (본지 주간, 전주 해성중 교감)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목자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구유에 누운 아기와 마리아와 요셉이 있더라.

□ **제1독서** (시락 3장)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한다.

□ **증계송** 복되여라, 하느님을 두려워 하고 그 도를 따는 자는,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 ◎하느님을 두려워 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 **제2독서** (골로사이 3: 12-21 성서 P. 460)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 생활.

□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는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 풍부히 너희 안에 계시리라. 알렐루야.

□ **복음** (루가 2: 22-40, 성서 P. 127)

아기는 자라며 지혜가 가득했다.

□ **신자들의 기도**

1.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진정 사회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온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민족들이 형제애로써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

3. 고통중에 있는 모든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과 우리를 사랑으로 맺으시어 모든 고난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

4.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도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

5. 여기 모인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한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다. 닥아오는 새해에도 사도직 수행의 사명을 자각하고,언제나,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

□ **성탄 감사송**

□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땅에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도다.

※ 이 주간의 성경 ※

- 1(월) 천주의 모친 마리아(평화의 날)
 독서(갈라디야 4: 4-7, 성서 P. 432)
 복음(루가 2: 16-21, 성서 P. 127)
- 2(화) 독서(요한 1서 2: 22-28, 성서 P. 545)
 복음(요한 1: 19-28, 성서 P. 203)
- 3(수) 독서(요한 1서 2: 29-36, 성서 P. 545)
 복음(요한 1: 29-34, 성서 P. 203)
- 4(목) 독서(요한 1서 3: 7-10, 성서 P. 546)
 복음(요한 1: 35-42, 성서 P. 204)
- 5(금) 독서(요한 1서 3: 11-21, 성서 P. 547)
 복음(요한 1: 43-51, 성서 P. 204)
- 6(토) 독서(요한 1서 5: 5-6, 성서 P. 549)
 복음(마르코 1: 6-11, 성서 P. 75)



□ 교리교실 □

탄생하신 예수님

박진량 신부

성탄절이 되면 으레 성당 안에 말구유를 차려놓고 그 위에 「탄생하신 예수아기」를 소박하면서도 호뜻한 분위기 속에 꾸며 놓는다. 우리는 그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조용한 마음으로 맨 첫번 성탄절의 광경을 잠시 생각해 본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어느덧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제신 것을 깨닫고 일어나 일터로 나간다.

이 예수님은 여자(인류)에게서 나신 분이이다. 전 인류를 대표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왜 하필 처녀가 그 분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 분은 인류 품안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다. 그러나, 「인류의 출산력 안에는 그 분을 낳을만한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에 모든 인간의 출산력, 모든 인류의 출생이 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가톨릭 신앙 입문 P. 640) 그분은, 사실상, 창세기 1장1절에 말하는 「태초」부터 이미 계시면서 창조(구원)사업을 계속하시던 「말씀」, 바로 그 분이였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다……말씀은 곧 하느님이로다……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생겨났으며 그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도다. (요한 1:1-3)라고 기록했고, 루카는 「성령이 아가씨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신 것입니다.」(루카 1:35)라고 천사의 입을 빌어 마리아에게 말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자(인류)에게서 나시고 또한, 하느님(성령)에게서 나신 분이이다. 이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데 대한 성경내용의 골자이다.

그 후로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이 생각한 나머지 어떤이는 그분을 순전히 사람으로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이는 정 반대로 인간의 외형만 갖춘 순전한 하느님 뿐이라고 생각하여, 4-5세기 경에는 신자들의 신앙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전후 3차에 걸친 공의회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성령의 감도 하심을 따라 분명히 밝혔다. 즉,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Person)안에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따라서 성모마리아에게는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칭호를 드린다고 선언했다.

□ 양지쪽 □

거울



사람이 하루에 몇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볼까? 당신은? 당신도 하루에 몇번이고 거울을 보고 싶은 때가 있을 것이다.

아들의 입학 시험장에 가기 위하여 몇번이고 거울을 들여다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던 최영구. 청심원으로 본이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거울을 쳐다 보며 단장하던 영구의 모습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여로에서)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고 거룩하기 까지하던 광경이던가? 그런가 하면, 밤새껏 술을 마신 술꾼이 늦게사 일어나 까칠까칠해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던 광경을 만난적도 있을 것이다. 대개는 후회스러운 모습으로 쓴웃음을 짓는 그 광경 말이다.

사람이 사람다워진 것 가운데 하나는 거울을 만들어 낸 일이라고 본다.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몰라 보고 앞에 있는 개에게서 고깃 덩어리를 빼앗아 보겠다고 으르렁대다가 제가 물고 있던 고기 마저 냇물에 빠뜨려 버린다는 이솝 우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미련하지는 않다. 거울이 없을 때에는 고요한 물위에라도 제 모습을 비추어 가며 저를 아름답게 다듬어 내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보신각 종이 서른 세번 울릴 때, 대개 사람들은 숙연해진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지난 한 해가 나에게는 어떤던가? 목표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대로 빙긋이 웃다가도 씩씩한 맛을 더 많이 느끼면서 그 종소리를 듣게 된다. 아쉬운대로 해 낸 일보다는 못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리라.

1972년 12월 31일 지는 해나 1973년 1월 1일에 솟는 해가 다를 바는 별로 없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르게 생각한다. 그믐과 초하루의 차이가 열이튿날과 열사흘날의 차이 뿐이겠지만, 그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보람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그렇지만은 않다. 그믐날이나 초하루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렇다.

당신이 보낸 한 해가 당신의 거울에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갑)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에서

		중	앙	노	송	등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진	동
교리비자	예일반	일(11시) 화. 목(10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직장	화. 목(오후 8시)		화(오후 7시)				수(저녁미사후)					일(오후 8시)		
간	학생	수. 토(오후 7시)													
	아동	토(오후 3시반)		토(오후 3시)	일(오후 2시반)	일(11시)	일(9시)	일(9시반)							
	학생	일(9시)		토(오후 4시)	토(오후 4시)								일(11시)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인생 여정



김진양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삼 느껴지는 것은 흐를 수록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이 차츰 가파라지고 또한 짧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인생 여정! 인생이 한평

생 살아 가는 길을 나는 가끔 언덕길에다 비유하여 보곤 합니다. 인생 여정이란 평탄할 때도 있지만 그 보다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그 너머 다시 또 언덕이 있고 그 언덕을 다시 넘어서면 또 다시 언덕이 가로놓이는 끝없는 언덕길.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끝없는 그 언덕을 넘어 넘다가 언젠가는 그 언덕의 마루턱에서 우리의 인생은 종막을 거두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길목을 더듬어 보면, 물론 거기엔 아름다운 청춘의 낭만적인 길목도 있고, 고난 끝에 얻어진 삶의 화려한 길목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더 고되고 험난한 길이 보다 길고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끝내 눈물도 메말라 버린 역우와도 같은 고난의 길도 있을 것이요, 대양의 풍파에 시달리는 일엽편주와도 같은 험난길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느 의미에 선 고난과 투쟁의 역사이고 보면,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남과의 대결이 전제되는 것이기에 어쩌면, 애당초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란 슬프고도 괴로운 길이기 마련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슬피하고 애타게만 생각할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한가지 기쁨을 얻기 위하여는 그 보다 더 많은 슬픔을 맛보아야 하고 작은 보람과 즐거움을 거두려면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요.

내일 모레로 입시를 앞둔 저부터가, 누구나 자기의 길을 보다 보람차고 멋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인간적인 노력, 성신의 도움을 비는 기도, 이것이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서학동 학생회원, 성심여중 3년생)

무상한 인생



김영구 신부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 해도 저무는 12월이다. 어린이는 크고, 청년은 성숙해지고, 노년은 사라지는 석양의 햇살같이 느끼게 하는 그름이다. 인

생이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인가?

나이먹은 사람에게 쓸쓸한 회포를 가지게 된다. 늙어간다는 구슬픔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내 주위에는 늙지 않고 성숙해가는 이들이 있음을 본다. 날이 더해질수록 더욱 더 아름다워지는 사과와 같이! 생의 목표를 더 선명하게 하면 그 최종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석양 낙조가 아침 햇살보다 더 아름다움같이!

1) 인생의 무상-아침 내다 볼 때엔 먼 것 같아도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짧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고달픈 인생행로라 하지만, 저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영영 보이지 않으니 너무나 무상하다. 지는 해는 내일 다시 떠오르지만 흘러간 인생은 가고 오지 못한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또 풀의 꽃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 물에 밀려 가는 잎새와 같은 인생인가! 그러나 우리의 지상생의 남은 날은 계수함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사명과 의무감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 그름의 구슬픔이다.

2) 인생의 영원-"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란 말씀이 뚜렷이 우리 두뇌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란 성귀가 새롭게 기억된다. 이 환난과 고통, 불만과 갈등이 착잡된 어두운 그름에 요단강 저편 수정같이 맑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묵은 해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해를 신앙으로 맞이하자.

이 잠깐 되는 무상한 인간이 저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살 때, 이 땅위에 새로운 역사가 건설될 것이다.

(전주시 교동 1가 132의4)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3498)

- 1(월) 지성인 교리 교실(제2기-11. 12월신청자-박진량 신부 지도)
- 3(수) 레크레이션 교실(진전한 노래와 즐거운 게임)
- 4(목) 불어 문화 교실(배요셉 신부 지도)
- 5(금) 지성인 교리 교실(제1기-9.10월신청자-문정현 신부 지도)

※ 연시 피정 안내(73. 1. 3-6, 회비 2,500원, 50명 한 선착순 접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체성, 독자성, 창조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이웃 형제에 대한 감사성과 민감성, 그리고 수용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그룹다이나믹스식 피정이 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교리교사 J.O.C 투사, 여러 평신도들을 초대합니다.

사진관의 대명사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고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6994

동남샤프 TV 및
스토-브

전주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5504

여요셉(윤창)

